

# 서울시민 80%, 명절 성차별 당했다

## 시여성가족재단, 추석 앞두고 1170명 조사

서울시민 80%가 명절에 성차별을 당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16일 밝혔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추석을 앞두고 4~11일 재단 누리집을 통해 시민 1170명을 대상으로 '명절에 성차별적인 언어를 들은 적이 있나'라고 묻는 결과 참가자 중 83.2%가 있다고 답했다. 여성은 86.8%가, 남성은 74.1%가 들은 적 있다고 응답했다.

'명절에 성차별적인 행동(관행)을 겪은 적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여성 88.8%가, 남성 69.9%가 겪은 적 있다고 답했다.

남녀 모두 명절 성차별 사례로 꼽은 것은 '명절에 여성만 하케 되는 삼차림 등 가사분담'이었다. 전체 중 절반 이상인 53.3%를 차지했다.

이어 ▲성별 고정관념을 제시하는 '여자가~', '남자가~' 발언

(9.7%) ▲결혼을 권유하거나 화제로 삼는 '결혼 간섭'(8.1%) ▲남성, 여성 따로 상을 차려 식사는 '남녀 분리 식사'(5.4%) ▲여성이 배제되는 '제시문화'(4.6%) 등 순이었다.

여성이 꼽은 성차별 1위는 '가

명절 성차별 Top5 1위 '女만 하는 가사분담' 53.3%

'시댁' → '시가', '친할머니·외할머니' → '할머니'

'여자가·남자가→사람이·어른이' 등 언어 제안도

사분담(57.1%)이었다. 2위가 '결혼 간섭'(8.9%), 3위가 '여자가, 남자가 발언'(7.9%), 4위가 '남녀 분리 식사'(6.5%), 5위는 '외모 평가'(4.7%)였다.

남성이 꼽은 성차별 1위도 '가

사분담(43.5%)이었다. 여성만 집 안일을 하는 것은 부담하다는 의견과 함께 남성도 함께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개선하고 싶어 했다. 2위는 여자가, 남자가 발언(14.4%), 3위는 '남성 부담(13.3%)'이었다. 남성에게만 지워지는 집, 연봉 등의 금전 부담과 특히 명절에 힘쓰는 일, 운전, 벌초 등을 모두 남자가 해야 한다

는 것에도 불편함을 드러냈다. 4위는 '결혼간섭(6.1%)', 5위는 '제시문화(4.7%)'였다.

이 밖에 이번 추석 명절부터 사용해보길 언어를 제안 받은 결과 '시댁→시가', '친할머니·외할머

니→할머니', '여자가·남자가→사

람이·어른이' 등이 나왔다.

'서울시 성평등 생활사전\_추석 특집'도 발간했다.

'사내자사'는 '성인으로서'로 '여자가 조신해야지'는 '너는 성격이 활발해서 좋아'로 '여자는 공부 잘해도 소용없다'는 '공부 잘해서 우리 집안 빛내줘'로, '여자들은 나중에 대충 먹어라'는 '가족 모두 함께 한자리에서 먹자'로 '남자가 가장 노릇하려면 집 한채는 살 수 있어야지'는 '집값 비싼데 부부가 힘을 합쳐 집 사거라'로 고치자고 시는 제안했다.

강경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시민제안 결과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의 차별경험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상처가 되는 언어와 행동 대신 성평등한 언어와 행동으로 명절 선물을 하지는 취지에서 시민과 함께 '성평등 생활사전'을 만들었다. 많은 분들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오늘부터 서울로7017에서 소국축제

9개 기업·봉사자 3000여명 참여

3일간 총 600개 소국 무료 배부

남북정상회담 개최 메시지 수레도

서울시는 서울로7017에서 9개 기업, 자원봉사자 3000여명과 함께 '서울로 소국소국(小菊小菊) 가을정원 주간'이라는 명칭으로 17~29일까지 다채로운 행사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로 7017 목련마당에서 17~19일 오전 11시부터 그랜드코리아 레저의 주최로 방문한 200명의 시민들에게 소국을(3일간 총 600개) 매일 나누어준다.

18일, 20일 오후 12시부터부터는 삼성생명 주최로 100명의 시민들에게 다육식물을(2일간 총 200개) 무료로 나누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소국은 포트담, 스위프트 두 가지 품종으로 노랑, 보라, 핑크, 와인, 흰색 등 다양한 색깔로 구성되어 나누어주고, 다육식물은 레티자아, 미블, 화재, 하월 4가지 종으로 각 50개씩을 나누어줄 계획이다.

또 17~20일 서울로 7017에서 풍성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목련무대에 소국과 다양한 소품들을 활용하여 '소국소국 포토존'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국이 가득한 꽃수레에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희망하며 200장의 나무명패에 희망메세지를 적어 보내는 이벤트도 17일 오전 11시부터 진행된다.

서울로 소국소국 가을정원주간의 참여기업 중 하나인 스튜디오 키에로의 참여로 진행되며, 목련마당에서 방문객들의 희망메세지를 받는다.

29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는 사진신청을 통해 모집된 가족 20팀 100여명과 함께 평화와 희망의 소국소국(小菊小菊) 정원만들기를 진행한다.

3월부터 매일 1회 만리동광장에

서 진행된 서울로 학교 가족 기념 교실로 서울로 7017 화분에 소국을 식재하는 가드닝 행사를 추진한다.

자원봉사포털사이트(www.1365.go.kr)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며 원하는 가족 구성원 모두 봉사신청을 해야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시민들이 모여 구성된 '서울로 초록하늘합창단 1기'가 참여하여 진행되는 첫 번째 공연 '가을로~서울로~윤슬 음악회'를 29일 오후 6~8시에 개최한다.

만리동광장에 위치한 공공미술작품 윤슬 내부에서 개최되는 이번 음악회는 (사)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행사로 길쭉서 지휘자의 지휘 아래 남북정상회담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기원하며 '그리운 금강산', '홀로아리랑' 등의 노래를 들려줄 예정이다.

5개 기관·기업과 1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서울로 그린데이'와 '서울로 정원문화교실'을 통하여 서울로의 환경정비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발 벗고 나선다.

서울특별시 교육청, 사회보장정보원, (주)플라워앤가든인피플, 상록수협동조합 등 4개 기관·기업은 서울로 그린데이(기업자원봉사)의 일환으로 19일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원봉사자와 함께 총 85명의 인원이 서울로 난간의 유리를 닦는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한다.

19일 오후 2~4시까지 9월 정원문화교실의 일환으로 '소유의 정원'에서 공유의 정원이라는 주제로 재능기부 강연회를 개최한다. (주)마에디자인이 주최하는 본 강의는 총 50명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며 서울로 홈페이지(scoullo.seoul.go.kr)를 통해 약 10여명이 추가로 수업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모든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로7017 홈페이지(scoullo7017.seoul.go.kr)를 참조하면 된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 경기행복주택 4개 지구 경쟁률 9.3대 1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건설하는 성남하대원, 양평공흥, 가평청사복합, 파주병원복합 등 경기행복주택 4개 지구의 평균 입주경쟁률이 9.3대 1을 기록했다.

도는 14일 4개 지구를 대상으로 입주자 공모를 마감한 결과 모두 146호 모집에 1360명이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성남하대원은 14호 모집에 94명이 신청해 6.7대 1, 양평공흥은 40호 모집에 264명이 신청해 6.6대 1, 가평청사복합은 42호 모집에 117명이 신청해 2.8대 1, 파주병원복합은 50호 모집에 36명이 신청해 0.7대 1을 기록했다.

성남하대원지구 청년층 18㎡형 8호 모집에는 884명이 몰려 무려 110.5대 1의 최고경쟁률을 나타냈다.

입대료가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인 11만~12만 원대이고 가스쿠파, 냉장고, 옷장, 시스템에어컨 등이 제공되는 것은 물론, 주변에 가천대학교, 신구대학교, 성남산업단지, 관교테크노밸리 등이 있어 젊은층의 관심이 높았던 것으로 도는 분석했다.



양평공흥 행복주택 조감도

'경기행복주택'은 정부의 행복주택을 기반으로 임대보증금 이자 지원, 신혼부부 육아에 필요한 주거공간 확대 제공,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등 3대 특수 지원정책을 더한 경기도만의 주거복지정책이다.

도는 민선 7기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청약 당첨자는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1차 검증 등 입주요건 심사 뒤 추첨으로 선정된다.

도는 1차 검증에서 무주택 여부, 소득수준, 자산규모 등을 확인해 입주자격 여부를 판단한다. 입주는 내년 1월 양평공흥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한다.

뉴스스

## 경기도 "G-FAIR 두바이" 예정대로

### "메르스 철저히 차단"

경기도는 중소기업들의 중동 시장 진출 교두보가 될 '2018 G-FAIR(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 두바이' 개막을 앞두고 참가자들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차단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2018 G-FAIR 두바이 개막식은 17일 오전 11시(현지시간) 두바이 데이라에 있는 메라트 호텔에서 열린다.

이틀 동안 열리는 행사에 김진홍 경기도 행정2부지사, 전영욱 주 두바이 대한민국 총영사, 이관석 KOTRA 중동지역본부장 조지 알 미스우드 박스터 인터네셔널 그룹 대표, 옴 메흐타 이반트 그룹 이사, 나라이나 디에스 닙테크 CEO, 파이살 자심 제벨 알리 경제자유구역 이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

도는 최근 국내 메르스 확진자 발생으로 'G-Fair 두바이' 취소를 검토했지만, 참가 기업이 행사 개최를 원하고 국가와 지자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고려해 애초 계획대로 행사를 열기로 했다.

도는 이 기간 두바이에서 열리는



국제전시회가 예정대로 열리는 점도 참고했으며, 다만 역대 최고 수준의 방역 안전대책을 갖춰 행사를 치르기로 했다.

도는 의뢰단 3명을 함께 파견하고 전시장에 응급의료 부스를 설치했다. 모든 참가자의 건강이상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하루 한 차례 이상 문진하고,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객들의 체온도 모니터링 한다.

행사를 마친 뒤에도 출장 인원 모두를 재문진한다.

앞서는 12일 질병관리본부와 협의해 고령자 등 메르스 위험군의 출장 자제를 권고했고 일부 인원은 출장에서 제외했다.

참가자의 감염병 예방수칙을 교육했고, 현지 박람회장에는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 위생용품들을 비치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